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13시 38분



목차

목차	2
호령	3
마을유래(□□)	3
지명유래(□□□□)	3
사장나무골짜[골]	3
새삼골[골]	3
산타밭[고개]	3
모개나무골(모개등)[골]	3
면낭골[골]	3
작살밭골창[골]	4
비삭골[골]	4
탱자나무골[골]	4
혼아개갯창(아갯가)[개]	4
잘박[개]	4
메물랑[능선]	4
호랑이굴[굴]	4
대포굴(□□□)[굴]	4
사장나무(□□□)[나무]	4
당집나무[나무]	4
큰산밭[들]	4
큰자갈밭(큰장안)[들]	4
불무등[등]	4
당집[당]	4
밖골[부리]	5
어등설이어[바위]	5
송곳어[바위]	5
잘막어(자래바구)[바위]	5
상바위[바위]	5
작은상바위[바위]	5
대패널[벼랑]	5
수리밀통[벼랑]	5
쌍금산[산]	5
토끼산(토끼등)[산]	5
고여(□□)(개여, 호여)[섬]	5
농여(녹여)[여]	5
술밭여[여]	5
숫들여[여]	5
미끄럼여[여]	6
갈모여[여]	6
빨래통(빨래둔병)[우물]	6
가장터[터]	6
당산[당]	6

규모	남도	둔병	모전	백야
사도	상화	신흥	여산	여석
여자	월항	월호	자봉	적금
제도	조발	하화	호령	화백
화산				

마을유래(☒☒)

임진왜란 당시 전주이씨(☒☒☒☒)가 피난차 입도하여 터를 잡아 마을을 형성 하였고, 그후 김해김씨(☒☒☒☒), 함평조씨(☒☒☒☒), 장흥위씨(☒☒☒☒) 등이 차례로 입도하여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.

지명유래(☒☒☒☒)

- 마을 뒷산 능선이 호랑이 모양으로 생겼으며,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범호(☒)자와 어조사야(☒)자를 따서 호야(☒☒)라 부르다가 어음이 변하여 흔역계로 불려왔다. 지방자치제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는 호령(☒☒)이라 칭하고 있다.
-
- 사장나무골짜기[골]**
사장나무 밑에 있는 골짜기.

 - 새삼골[골]**
호령마을 큰산밑에 있는 골짜기. 물이 맑고 숲이 우거져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.

 - 산타밭[고개]**
호령마을의 동편에 있는 고개. 산이 험악하여 오르기가 힘들다고 함.

 - 모개나무골(모개등)[골]**
호령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. 옛날에 모과나무가 있었다고 함.

 - 면낭골[골]**
호령마을의 동남쪽 약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. 면감낭쿨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.

 **식갈밭출렁[출]**

호령마을의 동편에 있는 골짜기. 자갈이 많이 있음.

 **비삭골[골]**

호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. 절벽의 주변에 비자나무가 자생하고 있음.

 **탱자나무골[골]**

호령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. 절벽의 주변에 비자나무가 자생하고 있음.

 **혼아개갯창(아갯가)[개]**

호령마을 안에 있는 개.

 **잘박[개]**

호령마을 앞 해상에 있는 개. 자갈이 많다고 함.

 **메물랑[능선]**

호령마을 큰 산 밑에 있는 능선. 바위에 멧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.

 **호랑이굴[굴]**

호령마을 동남쪽 200m 지점에 있는 굴. 굴 안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함.

 **대포굴(☒☒☒)[굴]**

호령마을 동남쪽 해안에 있는 굴. 대동아전쟁시 대포에 맞아 형성된 굴이라 함.

 **사장나무(☒☒☒)[나무]**

호령마을에 있는 팽나무.

 **당집나무[나무]**

호령마을 뒤에 있는 나무. 당제를 모시는 당집주위에 있음.

 **큰산밑[들]**

호령마을 뒷편 큰산밑의 들.

 **큰자갈밭(큰장안)[들]**

호령마을 동편에 있는 들. 밭에 자갈이 많이 있음.

 **불무등[등]**

호령마을의 맥이 흐르는 등. 산세의 멈춘 곳에 묘를 쓰면 마을에 액운이 생긴다 하여 지금도 묘를 쓰지 못하고 있음.

 **당집[당]**

호령마을의 당집. 신신제를 모시고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집.

박골[부리]

호령마을의 동남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부리.

어등설이어[바위]

호령마을 동남쪽 약 2km 지점의 수면 위에 떠 있는 바위. 육지와 약 10m 떨어져 있는데 어등설이란 사람만이 건너다녔다고 함.

송곳여[바위]

호령마을 동남쪽 약 150m 지점에 있는 바위. 바위가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겼으며, 옛날에는 수면상으로 3~4m 정도 보였으나 지금은 파도에 절단되고 1m 정도만 남아 있다.

잘막여(자래바구)[바위]

호령마을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바위. 바위 모양이 거북이(자라)목처럼 잘막하다고 함.

상바위[바위]

호령마을 뒷편 가장자리에 웅장하게 서있는 바위.

작은상바위[바위]

호령마을 상바위 옆에 위치한 바위. 상바위보다 작다고 해서 작은 상바위라 함.

대패널[벼랑]

호령마을 동남쪽 약 400m 지점에 있는 벼랑. 벼랑이 대패로 깎아 놓은 것처럼 반듯하다고 함.

수리밀통[벼랑]

호령마을 동남쪽 약 400m 지점에 있는 벼랑. 벼랑에 수리(독수리)가 살았다고 함.

쌍금산[산]

호령앞에 있는 산. 옛날에 금이 생산되어 채광업자가 금을 팠다고 함.

토끼산(토끼등)[산]

호령마을 서북쪽에 있는 산. 산의 모양이 토끼처럼 생겼음.

고여(☒☒)(개여, 호여)[섬]

호령마을 남쪽 약 7km 지점에 있는 섬. 외로이 떠있는 것처럼 보임.

농여(녹여)[여]

호령마을 앞 선창가에 있는 여. 옛날 농어가 많이 잡혔다고 함.

솔밭여[여]

호령마을 앞 동편 해안에 있는 여.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음.

솟돌여[여]

호령마을 앞에 있는 여. 높기그를 가는 솟돌처럼 생겼다고 함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미끄럼여[여]

호령마을 앞에 있는 여. 여가 반질반질하다고 함.

갈모여[여]

호령마을 동남쪽 해안에 있는 여. 여가 삿갓처럼 생겼다 함.

빨래통(빨래둔병)[우물]

호령마을 앞 해변가에 있는 우물. 옛날엔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빨래터로 사용하고 있음.

가장터[터]

호령마을 동쪽 약 600m 지점에 있는 터.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가매장했다가 상주의 운수가 맞는 해를 택하여 이장하기위하여 가매장을 했던 터.

당산[당]

호령마을 뒷산에 위치하며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모시던 터.

Yeosu Web Contents

